2025학년도 2학기

**기계학습프로그래밍**

**AI 시대의 생존 전략: 김대식 교수 강연 감상문**로고, 상징, 등록 상표, 텍스트이(가) 표시된 사진

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 --- | --- |
| **과목명** | 기계학습프로그래밍 |
| **담당** | 이명규 교수님 |
| **제출일** | 2025.10.25 |
|  |  |
| **학과** | 컴퓨터공학과 |
| **학번** | 202135941 |
| **성명** | 김정호 |

**폰트, 텍스트, 그래픽, 로고이(가) 표시된 사진

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I 시대의 생존 전략: 김대식 교수 강연 감상문

이 영상을 보고 느낀 것 중 하나는 기술의 발전이 너무 빨라서 AI라는 기술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전까지 만 해도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적어도 10년에서 20년은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몇 년 사이 이렇게 발전한 것을 보고 AI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미래,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대응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보게 되었다.

김대식 교수는 현재 핵심 AI 기술 3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는 텍스트만 다루던 유니모달에서 텍스트, 영상, 이미지, 음성 등 다양한 데이터를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멀티모달의 등장이다. 두 번째는 챗지피티의 기반이 되는 트랜스포머 모델이다. 트랜스포머 모델은 초기에 자연어 처리를 위해 등장한 모델로 텍스트를 생성하는 태스크를 수행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맞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건들을 존재했던 것처럼 말하는 등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심각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추론 모델이 등장했다.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생각의 고리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추론이 가능해지도록 진화하고 있다.

나도 챗지피티, 제미나이 등 여러 생성형 모델을 쓰며 생산성과 효율성이 늘어난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또한 내가 특히 놀랐던 부분이 있는데, 어느새 AI와 개인적인 대화를 하는 일이 늘어난 것이다. 나의 고민이나 내가 궁금해 하는 것들을 물어보곤 하는데, 김대식 교수가 이 대화를 남들에게 보여주기 힘들다는 말을 했을 때 나도 공감했다. 그만큼 어느새 AI가 나의 개인적인 바운더리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던 것이다. 그래서 교수는 미래에 진중한 대화는 AI와 대부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을 하며 영상을 보다 보니 정말 AI라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그래서 이미 열려버린 판도라의 상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

그래서 교수는 3가지를 꼭 해볼 것을 권장했다. 직접 해보는 것이 AI를 이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AI 에이전트, 바이브 코딩, 단편 영화 제작 등을 해보라고 했다. 결국 이 세 가지를 아우르는 핵심은 판단력이다. 생성형 AI를 통해서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경험해 보았다. 그러나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등 만들고자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계획을 통해서 AI에게 입력을 해야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고 한다.

그 판단력의 마지막 요소는 정확한 정보의 판별이다. 김대식 교수는 AI를 아첨꾼에 비유하였는데, 그 이유는 대화형 AI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더 해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진짜 정보를 판별하는 판단력을 길러야 한다고 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되었던 이유는 실제로 과거보단 할루시네이션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챗지피티, 제미나이와 대화하다 보면 우리가 물어보는 깊이 있는 질문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대답한다고 느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대답을 의심하고 여러 데이터 소스로부터 교차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김대식 교수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에 비해 인재풀도 적은데, 제일 뛰어난 인재들은 의대를 선호하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그래서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AI 기술 소비에 비해 AI 핵심 기술과 서비스를 만드는 능력을 부족하다고 말한다. 머리로 인지하고 있던 문제였지만, 김대식 교수의 말을 통해 한 번 더 되새기다 보니 엔지니어 처우 개선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